



전주매일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구속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불명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심사 초반 윤 대통령 측에선 최장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후 심사가 끝나기 전 5분간 최종 발언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

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오늘은 그저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부심을 청구하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재범이라는 게 다시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 해체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으며, 영장 발부로 구치소 문을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5명이다.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 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40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5분)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공지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전주객사 풍패지관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즉각 윤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5대 핵심산업의 추진상황, 전북자치도의 미래상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

김관영 도지사 “5대 핵심산업 육성”

“자치도 성공 안착, 도민 체감 변화에 역량 집중”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북자치도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2면>

김관영 도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1년 전, 저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선포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많은 국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지난 1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쉽 없이 달려 왔

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가 될 전북특별법의 시행 준비에 노력했다.”고 했다.

그리고 “전북특별법은 핵심 기능의 역할을 하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의 육성과, 이들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주춧돌인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반지,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7개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식품부,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농생명산업지구로 공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K-문화·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 생태계가 창조되

도록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분류가 전북이라는 자부심을 성장동력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령친화·첨단산업 육성·민생과 직결된 산업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후 기자회견의 간담회를 통해 “다른 지역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속도감있게 특례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이 도전하고 있는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 전북특별법 보강을 위해 의원입법 16건, 정부입법 44건 등 총 60건의 법안제정을 추진해 전북자치도가 5대 핵심산업의 구체화에 기여하고 재정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 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스페인 유력 언론 “전주, 글로벌 음식관광 중심지”

엘페리오디코 “비빔밥의 발상지, K-푸드 열풍 이끈 원동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도시인 전주시가 스페인 유력 언론인 ‘엘페리오디코(El Periodico)’로부터 글로벌 음식 관광의 중심지로 평가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엘페리오디코는 지난 13일 기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푸드의 중심지로 전주를 집중 조명했다.

엘페리오디코는 이 기사에서

“2025년 한 해도 음식 본연의 맛은 물론 독창적인 스토리가 담긴 요리가 미식관광의 트렌드로 더욱 굳건히 잡힐 것”이라고 분석하며, “코펜하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은 기존 미식도시가 아닌, 한국의 전주가 음식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에 대해서는 “쌀밥, 나물, 육회,

달걀 고명을 한 그릇에 넣고 비벼 먹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조화와 균형의 가치가 담겨있다”면서 “전주는 비빔밥의 발상지이자 한국의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한 곳이며, 요즘의 취향을 반영해 끊임없이 맛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주의 음식문화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